

#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문화 효능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Efficacy towards North Korean Refugees

박진경\*, 최순옥\*\*, 김희숙\*\*\*, 서임선\*\*\*\*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가톨릭관동대학교 간호학과\*\*\*\*

Jin Kyoung Park(jkpark@dju.kr)\*, Soon Ook Choi(cusangel@hanmail.net)\*\*,  
HeeSook Kim(kimhs02041@hotmail.com)\*\*\*, Im Sun Seo(sunnlyc@cku.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 주민 문화간호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간호대학생 28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다중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주민 문화간호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는 학년( $p=.033$ ), 형식적 다문화 교육 중 대학 전공과목( $p=.035$ ), 대학 교양과목( $p=.009$ ), 국민정체성의 하위영역 중 멤버십( $p=.001$ ), 북한이탈주민 문화인식의 하위영역인 인지적 요소( $p=.049$ ), 의식적 요소( $p=.008$ ), 행동적 요소( $p=.001$ )이었다. 연구결과는 간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과정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다문화 교육과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제시하며 간호 대학생이 졸업 후 사회에서 유능한 문화간호 수행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중심어 : | 간호대학생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 효능감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multicultural efficacy towards North Korean Refugees of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283 undergraduate students from July 2017 to December 2017.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showed that study grade( $p=.033$ ), liberal arts in formal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p=.009$ ), membership of national identity( $p=.001$ ), and cognition( $p=.049$ ), consciousness ( $p=.008$ ), behavior( $p=.001$ ) of cultural awareness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multicultural efficacy towards North Korean Refugees of Nursing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ducational system related to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establish in the curriculum to enhance the efficacy of nursing.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nursing students to perform their roles as competent cultural agents in society after graduation.

■ keyword : | Nursing Students | North Korean Refugees | Multicultural Efficacy |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외국인의 유입이 증

가하여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노동 인  
구 감소로 인한 외국인의 국내 취업, 결혼이민자, 외국  
인 유학생, 난민의 유입 등으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의 수는 2008년 116만 명에서 2017년 2월 현재 200

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체류외국인 장·단기 체류는 전년 대비 14.1% 증가하였다[1]. 또한 국내의 의료·관광융합 의료상품 확대,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지원 강화 등 정책 사업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수가 2009년 6만명에서 2016년 36만4천명으로 2015년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세계 속의 의료한류를 확산하였다[2].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993년까지 연간 10여명 수준에서 2002년 1,000명대로 증가하였고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2011년 2,706명이 입국하였다. 2012년 이후부터는 입국인원이 1,500여명대로 감소하여 2017년도 1,127명으로 2017년 4월말 기준 3만명을 넘어섰다[3]. 이들 중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우리 정부는 많은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착 한국인들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같은 장소에 공존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한국인들이 다문화의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다문화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다문화 수용성, 사회적 거리감, 국가정책 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동아일보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2016년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 4곳에서 남북 출신 주민 간 대화 경험이 있는 주민 404명을 대상으로 주민 통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의 69.1%, 남한 주민의 62.7%가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4]. 뿐만 아니라 2015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에서 54.4%로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친근감 있다고 한 응답률이 2005년 75%, 2010년 55.2%로 나타나 시간이 경과 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5].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거주 지역 내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시설을 고려할 때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그들의 지역 진입을 방해하고 배척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남한 주민의 태도는 점차 싸늘해지고 냉담하다. 다른 문화에 적응된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언어, 사회, 문화, 정서 등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그들을 위한 심리·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간호 제공을 위한 노력과 변화가 매우 절실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정책 및 서비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생활권을 공유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서는 역차별 또는 형평성의 문제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정치, 경제, 문화, 인구 통계적 관점에서 수용과 비판이 혼재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봉착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문화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자기 효능감 개념에서 발달한 다문화 효능감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 편견과 사회적 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가족의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고, 가치판단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체류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고 이런 역할을 정부, 시민단체,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대상자의 가치, 신념, 태도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공존하면서 편견 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또한 타문화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습득해야 할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역량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은 국적이거나 민족정체성에 있어서 남한 사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접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른 국민정체성이 형성되고 이주과정에서 경험한 정서적, 심리적 충격과 사회문화의 급격한 변화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므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현재 국내 유입된 이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의료기관 이용 안내,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의료진의 문화간호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의 간호를 책임져야 하는 간호 대학생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대상자를 존중하고 진정한 돌봄을 제

공할 수 있는 문화간호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문화적 역량의 증진을 위해 타 문화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인식변화를 수용하고 개방적 태도로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국내에 존재하는 다문화의 특성과 차이점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문화적 태도가 요구되며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한 다문화 교육을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옥장흠[6]의 연구에서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배경, 관점, 방법, 지도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권하정[7]의 연구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교육경험, 분위기, 효능감, 다문화 수용성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제시하여 다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간호대학생은 향후 남북교류 및 남북통합 시 북한주민의 간호수행과 미래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문화 효능감을 통해 다문화 간호 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국내의 많은 간호대학에서 다문화 간호 역량을 갖춘 간호사 양성을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8], 글로벌 리더, 국제적 간호를 강조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임상현장에서 다문화 대상자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있지 않고 학부에서의 문화역량 관련 교육과정도 대학마다 선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9]. 따라서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을 갖춘 간호사로서 다문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체계의 변화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체계적 다문화간호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다문화효능감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는 초·중·고등학생[7][10-12], 현장교사나 예비교사[6][13][14], 타과 전공대학생[15]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문화 인식[10][11], 다문화 효능감[12][15], 다문화 교육[16], 문

화적 역량[17], 다문화 수용성[18-20] 등을 주제로 한 연구가 많았다. 간호대학생[8][16][21-23], 간호사[17][24]대상의 다문화 연구도 문화적 역량[21][25], 다문화 인식[8], 다문화 효능감[8][16],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22], 다문화간호 교육프로그램[16], 문화간호역량[23] 등 다양한 변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질적인 의료 현장에서의 변화에 동참해야 하는 시점에서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을 측정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 주민 문화간호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형식적 다문화 교육,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 국민정체성, 북한이탈주민 문화인식 및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형식적 교육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형식적 다문화 교육,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 국민정체성, 북한이탈주민 문화인식 및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 주민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문화간호 역량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 1-4학년 학생이다. 자료수집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수거된 총 285명의 자료 중 응답 내용이 충실한 283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 시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서면 동의를 허락한 자료만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와 참여자에 대한 익명이 보장되고, 본 연구의 자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 진행 중에 언제든지 철회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10분가량이며,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 3. 연구도구

### 3.1 형식적 다문화 교육경험

형식적 다문화 교육경험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 경험과 간호학 전공선택 또는 교양 교과목에서의 교육 경험 및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실습활동을 통한 교육 경험을 의미한다. 형식적 다문화 교육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옥미희[11]가 구성한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초, 중,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문화, 인종과 관련된 교육, 반편견 교육 등 다문화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본 연구 대상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전공, 교양 과목,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형식적 다문화 교육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6개 문항에 대해 각각 '1=예', '0=아니오'로 평가하여 총합이 0-6점 사이에 분포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형식적 다문화 교육경험이 풍부한 것을 의미한다.

### 3.2 비형식적 다문화경험

Ward[26]가 개발한 Cross-Cultural Life Experience Checklist(CCLEC)에서는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으로 9가지 요인(가족, 친구, 사회, 일터, 학교, 교회, 미디어, 언어, 여행)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대상이므로, '일터'를 제외한 8가지 요인(가족, 친구, 지역사회, 학교, 종교, 미디어, 외국어, 여행)으로 수

정한 옥미희[11]의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총합은 0-28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이 풍부한 것을 의미한다. 옥미희[11]의 연구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0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4$ 로 나타났다.

### 3.3 국민정체성

국민정체성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 기여의식, 존중감,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 세계시민의식을 의미한다. 국민정체성 측정도구는 Tajfel과 Turner[27]의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근거하여 Luhtanen과 Crocker[28]가 개발한 집합적 자아존중감 척도(Collective Self-Esteem Scale)를 Lilli와 Diehl[29]이 20개 문항으로 구성한 국민정체성 척도(National Identity Scale, NIS)를 최영은[30]이 한국의 문화·역사적 맥락에 따라 수정하고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국민정체성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며, 하위영역에는 멤버십, 사적평가, 공적평가, 동질감, 비교평가가 있다. 본 척도는 7점 척도로서, 부정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국민정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영은[30]의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7$ 이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4$ 로 나타났다.

### 3.4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인식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에 대하여 인지적, 의식적, 행동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선행 연구에 우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박윤경, 성경희와 조영달[13]의 다문화 인식 설문지를 재구성한 임명희[10]의 연구 도구를 북한이탈주민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북한 관련 전문가 및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의 검증을 받아 사용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인식 척도는 인지적 5문항, 의식적 5문항, 행동적 5문항의 3개 하위 영역으로 5점 Likert 척도이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1. 일반적 특성 및 형식적 다문화 교육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

(N=283)

| 구분     |     | n(%)      | Mean±SD     | t/F  | p     | scheffe |
|--------|-----|-----------|-------------|------|-------|---------|
| 성별     | 남자  | 35(12.4)  | 77.02±6.68  | 0.51 | .611  |         |
|        | 여자  | 247(87.6) | 77.68±9.57  |      |       |         |
| 학년     | 1   | 96(33.9)  | 80.26±9.72  | 5.77 | .001  | 1)3     |
|        | 2   | 90(31.8)  | 77.07±7.98  |      |       |         |
|        | 3   | 74(26.1)  | 74.51±8.67  |      |       |         |
|        | 4   | 23(8.1)   | 78.30±10.77 |      |       |         |
| 종교     | 가톨릭 | 47(16.7)  | 75.97±8.60  | 1.82 | .124  |         |
|        | 기독교 | 77(27.4)  | 78.83±8.14  |      |       |         |
|        | 불교  | 15(5.3)   | 72.73±5.03  |      |       |         |
|        | 없음  | 137(48.8) | 78.02±10.11 |      |       |         |
|        | 기타  | 5(1.8)    | 77.60±13.55 |      |       |         |
| 초등학교   | 예   | 174(61.7) | 79.13±9.28  | 3.59 | <.001 |         |
|        | 아니오 | 108(38.3) | 75.13±8.69  |      |       |         |
| 중학교    | 예   | 189(67.0) | 78.69±9.05  | 2.83 | .005  |         |
|        | 아니오 | 93(33.0)  | 75.38±9.30  |      |       |         |
| 고등학교   | 예   | 182(64.6) | 79.16±9.19  | 3.88 | <.001 |         |
|        | 아니오 | 100(35.4) | 74.78±8.77  |      |       |         |
| 대학전공   | 예   | 179(63.5) | 77.57±9.36  | 3.81 | .002  |         |
|        | 아니오 | 103(36.5) | 73.68±9.14  |      |       |         |
| 대학교양   | 예   | 134(47.5) | 78.38±9.02  | 2.84 | .004  |         |
|        | 아니오 | 148(52.5) | 74.89±9.43  |      |       |         |
| 실습교육경험 | 예   | 27(9.5)   | 77.66±7.93  | 0.40 | .686  |         |
|        | 아니오 | 255(90.1) | 77.00±9.39  |      |       |         |

임명희[10]의 연구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9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9$ 이었다.

### 3.5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 도구는 오원옥, 박은숙, 석민현과 임여진[24]이 우리나라의 다문화관련 보건의료시스템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 간호사에게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다문화 효능감 척도(Transcultural Self-Efficacy Scale; TCSE-scale)를 북한이탈주민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북한 관련 전문가 및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의 검증을 받아 사용하였다. TCSE-scale은 총 25문항으로, 인지영역 4문항, 실무영역 12문항, 정서영역 9문항의 3개 하위 영역이며, 4점 Likert 척도이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연구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1$ 이었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IBM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및 형식적 다문화 교육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형식적 다문화 교육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은 [표 1]과 같다.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248명(87.6%), 남성 35명(12.4%)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 8배가량 많았다.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은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0.51$ ,  $p=.611$ ). 학년별 분포는 1학년 33.9%(96명), 2학년 31.8%(90명), 3학년 26.1%(74명), 4학년 8.1%(23명)이었다.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은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데( $F=5.77$ ,  $p=.001$ ),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은 1학년이 3학년 보다 높게 나타났

표 2. 주요 변인들의 다문화 효능감 정도

(N=283)

| 구분                       | Mean±SD   | Total Item |         | Item Mean±SD |           |
|--------------------------|-----------|------------|---------|--------------|-----------|
|                          |           | Minimum    | Maximum |              |           |
| 형식적 다문화 교육               | 3.15±1.63 | 0          | 7       | -            |           |
|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 (1점 척도)      | 가족        | 1.31±0.82  | 0       | 4            | 0.32±0.41 |
|                          | 친구        | 1.39±1.39  | 0       | 4            | 0.32±0.69 |
|                          | 지역사회      | 0.91±0.88  | 0       | 3            | 0.30±0.44 |
|                          | 학교        | 1.10±0.90  | 0       | 3            | 0.36±0.45 |
|                          | 종교        | 0.78±0.78  | 0       | 2            | 0.39±0.39 |
|                          | 미디어       | 3.58±1.48  | 0       | 5            | 0.71±0.74 |
|                          | 외국어       | 1.20±1.00  | 0       | 4            | 0.30±0.50 |
|                          | 여행        | 2.06±1.00  | 0       | 4            | 0.68±0.50 |
| 국민정체성 (7점 척도)            | 합계        | 12.3±4.39  | 0       | 24           | 0.44±2.19 |
|                          | 멤버십       | 27.45±3.62 | 15      | 39           | 4.57±0.51 |
|                          | 사적평가      | 25.99±3.21 | 16      | 36           | 3.71±0.45 |
|                          | 공적평가      | 12.06±1.68 | 4       | 17           | 4.02±0.24 |
|                          | 동질감       | 21.23±3.65 | 5       | 35           | 4.24±0.52 |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인식 (5점 척도)     | 비교평가      | 12.37±2.67 | 5       | 21           | 4.12±0.38 |
|                          | 합계        | 99.12±9.12 | 61      | 132          | 4.13±1.30 |
|                          | 인지적       | 16.79±2.74 | 10      | 25           | 3.35±0.54 |
|                          | 의식적       | 16.39±2.95 | 5       | 25           | 3.27±0.59 |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간호 효능감 (4점 척도) | 행동적       | 15.95±2.49 | 5       | 25           | 3.19±0.49 |
|                          | 합계        | 49.1±7.08  | 27      | 75           | 3.27±1.41 |
|                          | 인지영역      | 12.00±1.79 | 4       | 16           | 3.00±0.44 |
|                          | 실무영역      | 37.33±4.53 | 12      | 48           | 3.11±1.13 |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간호 효능감 (4점 척도) | 정서영역      | 28.24±3.60 | 9       | 36           | 3.13±0.90 |
|                          | 합계        | 77.5±9.24  | 25      | 100          | 3.10±2.30 |

다. 종교는 무교 48.8%(137명), 기독교 27.4%(77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종교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t=1.82, p=.124$ ). 형식적 다문화 교육 경험은 초등학교 때 교육 경험이 있었던 학생은 61.7%(174명), 중학교 교육 경험 67.0%(108명), 고등학교 교육 경험 64.6%(182명), 대학교 전공 교과목 교육 경험 63.5%(179명), 대학교 교양 교과목 교육 경험 47.5%(134명), 실습 교육 경험 9.5%(27명)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교육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 2. 형식적 다문화 교육 경험,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인식,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 정도

연구 대상자의 형식적 다문화 교육 경험,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인식,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 정도는 [표 2]와 같다. 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공 및 대학교 교양 교과목, 실습 교육 등의 6개 항목에서 평균 3.15±1.63번

형식적 다문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은 미디어를 통하여(0.71±0.74), 여행 중 (0.68±0.50), 종교 생활을 통하여(0.39±0.39), 학교에서(0.36±0.45) 순으로 높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정체성은 멤버십(4.57±0.51), 동질감(4.24±0.52), 비교평가(4.12±0.38), 공적평가(4.02±0.24), 사적평가(3.71±0.4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인식은 북한이탈주민 문화에 대하여 인지적, 의식적, 행동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지적 요소(3.35±0.54)가 가장 높았고, 의식적 요소(3.27±0.59), 행동적 요소(3.19±0.49)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효능감은 정서 영역(3.13±0.90)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실무 영역(3.11±1.13), 인지 영역(3.00±0.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서적 영역의 다문화 간호를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형식적 다문화 교육,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 국민정체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인식,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표 3.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N=283)

|                | A           | B           | C           | D           | E           |
|----------------|-------------|-------------|-------------|-------------|-------------|
|                | r( $\rho$ ) | r( $\rho$ ) | r( $\rho$ ) | r( $\rho$ ) | r( $\rho$ ) |
| A. 형식적 다문화 교육  | 1           | .11(.051)   | .15(.008)   | .03(.609)   | .19(.001)   |
| B.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 |             | 1           | -.02(.722)  | .19(.001)   | .02(.688)   |
| C. 국민정체성       |             |             | 1           | .07(.193)   | .12(.038)   |
| D. 다문화 인식      |             |             |             | 1           | .51(<.001)  |
| E. 다문화간호 효능감   |             |             |             |             | 1           |

표 4.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N=283)

| 변수            | B     | SE    | $\beta$ | t     | p     | 공차한계 |     |
|---------------|-------|-------|---------|-------|-------|------|-----|
| 학년            | -1.03 | .48   | -.10    | -2.14 | .033  | .92  |     |
| 형식적 다문화 교육    | 초등교육  | 1.52  | 1.41    | .08   | 1.07  | .284 | .41 |
|               | 중등교육  | -2.42 | 1.64    | -.12  | -1.47 | .143 | .32 |
|               | 고등교육  | 2.18  | 1.20    | .11   | 1.81  | .071 | .54 |
|               | 대학 전공 | 1.78  | 1.03    | .10   | 1.72  | .035 | .68 |
|               | 대학 교양 | 2.67  | 1.00    | .14   | 2.64  | .009 | .77 |
| 국민 정체성        | 기관실습  | -.93  | 1.57    | -.03  | -.59  | .550 | .92 |
|               | 멤버십   | .49   | .15     | .19   | 3.24  | .001 | .64 |
|               | 사적평가  | -.10  | .14     | -.03  | -.71  | .473 | .90 |
|               | 공적평가  | -.19  | .28     | -.03  | -.70  | .483 | .86 |
|               | 동질성   | -.16  | .15     | -.06  | -1.11 | .265 | .64 |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인식 | 비교평가  | -.32  | .17     | -.09  | -1.81 | .071 | .86 |
|               | 인지적   | .43   | .22     | .12   | 1.94  | .049 | .52 |
|               | 의식적   | .73   | .27     | .23   | 2.67  | .008 | .29 |
|               | 행동적   | .97   | .29     | .26   | 3.30  | .001 | .36 |

R<sup>2</sup>=.38, Adjusted R<sup>2</sup>=.35

F=11.21, p<.001

Durbin-Watson=1.92

대상자의 형식적 다문화 교육,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 국민정체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인식,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표 3]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 주민 다문화 효능감은 형식적 다문화 교육(r=.195, p=.001), 국민정체성(r=.124, p=.038),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인식(r=.515, p<.001)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형식적 다문화 교육이 많을수록, 국민정체성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인식이 높을수록 북한이탈 주민 다문화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 4.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모두 넣어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는 학년( $\beta$ =-.107, p=.033), 형식적 다문화 교육 중 대학 전공과목( $\beta$ =.10, p=.035), 대학 교양 과목( $\beta$ =.14, p=.009), 국민정체성의 하위영역 중 멤버십( $\beta$ =.19, p=.001)이었으며,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인식은 하위영역 모두 영향을 미쳤는데, 인지적 요소( $\beta$ =.12, p=.049), 의식적 요소( $\beta$ =.23, p=.008), 행동적 요소( $\beta$ =.26, p=.001)이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1에서 11.21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은 3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본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Durbin-Watson은 1.92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간 호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은 평균 차이가 없었다. 이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은희[31]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다문화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정우[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문화 효능감은 1학년이 3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학년에 다문화 관련 교양 교과목을 수강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문화 간호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를 가지고, 실무에 대한 다문화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고 보고한 Sarafis과 Malliarou [32]의 연구와 박진경, 서임선과 김희숙[33]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지만,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의 인식이 낮은 반면 다문화 교육목표에서 높게 인식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다문화 지식의 부재에 따른 막연한 자신감이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 권미은, 권미지와 이미아[14]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다문화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이 인간관계를 증진하여 다문화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지정우[1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자기효능감은 장기간 동안 변화하는 환경과 정보에 대한 역동적 반응이라고 한 Jeffreys[34]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다문화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때 다문화 효능감이 증가하게 되므로 전 학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형식적 다문화 교육은 평균  $3.15 \pm 1.63$ 번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교육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체험형 다문화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 간의 문화적 역량에 차이가 없다고 한 김덕희와 김성은[25]의 연구결과와 다르지만 다문화간호 교육프로그램의 경험이 있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기존의 연구들[15][23]과 맥을 같이 한다.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대상자에게 문화간호 수

행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다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교과별 및 교양교육, 다양한 문화 그룹 간의 교류, 상호협력 등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은 미디어, 여행, 종교생활, 학교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미디어를 통한 경험이 다문화효능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의 다문화 경험은 가족, 친지, 일반적인 생활경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한 박미혜[12]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으나 중학생의 다문화 인식 연구에서 대중 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미디어가 다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육미희[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다양한 방송매체의 활용뿐만 아니라 교과과정과 연계된 다문화 활동을 통해 다문화를 경험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비형식적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 효능감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 인식에 10%, 다문화 효능감에 2%의 설명력을 보여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낮다고 한 권미은, 권미지와 이미아[1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기존 다문화 대상자와의 임상적 만남이 다문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는 김선희[23]의 연구와 다문화 관련 대중매체의 접촉경험 및 접촉시간이 많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지정우[15]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국민정체성은 하위영역인 멤버십, 동질감에서 다문화 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멤버십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고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상황이 개인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29]. 동질감은 사회에 소속된 구성원의 공헌에 대한 생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는 시민적 요인인 국적, 한국어, 제도와 법 준수, 역사 이해 및 전통과 관습 준수 등이 국민 됨의 자격요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 손애리와 이내영[1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와는 반대로 국민 정체성이 시민적 요인보다는 인종적 요인에 의해 강한 영



향을 받을수록 더욱 제한적인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Brubaker[35], Joppke[36]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다. 강한 인종적 정체성은 '국민'에 대한 특별한 의미 부여와 동일감을 중요시하는 한국인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이다[20][35]. 이렇듯 국민정체성은 다문화 수용의 출발점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적 속성과 입장을 평가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박윤경, 성경희와 조영달[13]의 연구에서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인지적 영역은 대상에 대한 인지적 사고, 신념, 사실, 지각, 지식 등을 말하며, 정의적 영역은 대상과 관련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을, 행동적 영역은 대상과 관련된 행동 의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의적 영역을 대상자에 대한 감정, 정신적인 부분으로 판단하여 의식적 영역으로 제시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인식은 인지적(M=3.35), 의식적(M=3.27), 행동적 요소(M=3.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명희[9]와 박윤경, 성경희와 조영달[13]의 연구에서도 인지적 요인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다문화 효능감은 중간 점수 이상인 3.10으로, 정서, 실무, 인지영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리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arafis와 Malliarou[32]의 연구와 일맥상통하였다. 이상의 연구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정서영역은 문화적 인식, 수용, 이해, 옹호 등으로 표출되는 개인적인 태도, 가치, 신념으로 문화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량이다[23].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정서영역은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무, 인지 영역의 다문화 간호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의 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 주민 다문화 효능감은 형식적 다문화 교육, 국민정체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인식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식적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효능감의 관계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다문화 교육을 받은 군이 받지 않은 군에 비해 다문화 효능감 증진에 효과적이다[8][37]. 다문화에 대한 관심, 교육과 경험, 다문화 대상자와의 만남과 교류는 다문화 대상자의 문화와 태도를

수용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18][23]에서 입증되고 있다. 국민정체성은 국민정체성의 요건, 타인종에 대한 태도, 다문화 행동 의사 등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정석원[18]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미혜[12]의 연구에서 개방성, 수용성, 존중성 등 정의적 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 전공과목, 교양과목, 국민정체성 중 멤버십, 문화 인식(인지적, 의식적, 행동적 요소) 이었다. 이는 대상과 관련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교육 경험 등을 제시한 권하정[7]의 연구와 일부 일치한다. 또한 지정우[15]의 연구에서 학년, 다문화 관련 연수경험, 다문화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 외국어 능력 등이 다문화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한 것과도 일치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문화 교육, 다문화 경험, 멤버십, 다문화 인식 등이 북한이탈주민 문화간호 효능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교과과정에 문화간호 효능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돕고 원활한 교류로 문화간호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간호대학생의 교과과정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학생들이 앞으로 수행할 글로벌 간호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북

한이탈주민 다문화 효능감은 학년, 형식적 다문화교육, 국민정체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인식 변수들이 35.3%의 설명력을 보였다. 향후 남북 교류 시 보건의로 제공의 주역으로 활동할 예비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간호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학과와 대학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질 제고와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간호효능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과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1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한 보다 깊이 있고 정교한 다문화간호 제공을 위한 유사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사회에서 유능한 다문화간호 수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간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 및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7(2).
- [2] 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를 위한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 강화, 환자 안전과 편의성개선,”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7.06.26.
- [3]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2017.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2017.03.14.
- [4] 윤완준, 주성하, 변수연, “토요판 커비스토리-한국 온탈북민 3만명… 함께 살 준비 됐나요,” DongA.com, 2016. <http://news.donga.com/3/00/20160723/79342645/1#csidxc32a964a28ba889be58f5f587f3b188%ED%AF%80%ED%B0%81>, 2018.12.30.
- [5] 이내영,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강원택, 이내영 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6.
- [6] 옥장흠, “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 제26권, 제4호, pp.191-221, 2009.
- [7] 권하정,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다문화 교육 경험, 다문화 분위기,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 수용성 간의 구조 관계 분석*, 증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8] 김남희, 임선영,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및 다문화 효능감의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제7권, 제4호, pp.169-184, 2014.
- [9] 박연숙, 이성옥, 이혜경, “간호학생의 다문화 경험에 따른 역량과 공감 능력 차이,” *다문화건강학회지*, 제5권, 제2호, pp.39-47, 2015.
- [10] 임명희, *중·고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1] 옥미희, *중학생의 다문화 인식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12] 박미혜,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경험, 학부모의 고정관념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pp.2749-2757, 2014.
- [13] 박윤경, 성경희, 조영달, “초·중등 교사의 문화다양성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태도,” *시민교육연구*, 제40권, 제3호, pp.1-28, 2008.
- [14] 권미은, 권미지, 이미아, “예비특수교사의 다문화 경험, 다문화 인식 및 다문화 효능감 연구,” *특수교육*, 제11권, 제3호, pp.5-25, 2012.
- [15] 지정우,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6] 채명정, 김진일, “간호대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30권, 제1호, pp.70-82, 2016.
- [17] 채덕희, 박윤희, 강경화, 이태화, “종합병원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수준과 영향요인,” *간호행정학회지*, 제8권, 제1호, pp.76-86, 2012.
- [18] 정석원,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19] 손애리, 이내영,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19권, 제3호, pp.5-34, 2012.
- [20] 윤인진, 송영호, “한국인의 국민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 연구*, 제23권, 제1호,

pp.143-192, 2011.

[21] 이인숙, 조주연,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다문화 교육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호, pp.283-290, 2014.

[22] 이은미, 김선희,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문화적 민감성이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4호, pp.459-468, 2017.

[23] 김선희, "간호대학생을 위한 문화간호역량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4호, pp.580-593, 2013.

[24] 오원옥, 박은숙, 석민현, 임여진, "간호사의 범문화효능감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한국간호과학회지, 제46권, 제2호, pp.293-304, 2016.

[25] 김덕희, 김성은,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수준과 영향요인," 정신간호학회지, 제22권, 제3호, pp.159-168, 2013.

[26] J. M. Ward, *The relationship of preservice teacher's cross-cultural experience with their belief about teaching divers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s University, Manhattan, 1996.

[27] H. Tajfel and J. C. Turner,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and L. W. Austin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behavior*, Chicago : Nelson-Hall, pp.7-24, 1986.

[28] R. Luhtanen and J. Crocker,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18, pp.302-318, 1992.

[29] W. Lilli and M. Diehl, *Measuring national identity*, Working Paper, Vol.10, Mannheimer Zentrum für Europäische Sozialforschung, 1999.

[30] 최영은, *다문화 사회화 요인이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31] 이은희, "예비교사의 다문화교육역량으로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에 관한 연구," *교사교육연구*, 제55권, 제1호, pp.120-133, 2016.

[32] P. A. Sarafis and M. M. Malliarou, "Cultural self-efficacy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 a Greek University," *Iranian Journal of Nursing and Mid wifery Research*, Vol.18, No.6, pp.446-450, 2013.

[33] 박진경, 서임선, 김희숙,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제5호, pp.785-802, 2019.

[34] M. R. Jeffrey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transcultural self-efficacy tool: A synthesis of finding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11, pp.127-136, 2000.

[35] R. Brubake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ss: Havard University Press, 1992.

[36] C. Joppke, "Why liberal states accept unwanted immigration," *World Politics*, Vol.50, No.2, pp.266-293, 1999.

[37] 픽은희, 박재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공감 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제43권, 제5호, pp.690-696, 2013.

저 자 소 개

박진경(Jin Kyoung Park)

정회원



- 2007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석사)
- 2015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2019년 2월 : 인천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건강증진, 보건교육, 노인허약

최순옥(Soon Ook Choi)

정회원



- 1995년 5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간호관리, 조직사회화, 노인간호

김 희 숙(HeeSook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 박사)
- 2012년 10월 ~ 2019년 현재 :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여성건강, 교육방법, 북한보건의료, 통일과 간호

서 임 선(Im Sun Seo)

정회원



- 2002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1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가톨릭관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간호관리, 환자안전과 질향상